

법 어

생명의 기운과 싱그러운 바람이 삶의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생동하는 꽃향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에게 정겨움을 나누며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강신명 경찰청장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많은 경찰불자님의 노력으로 여법한 봉축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신심 가득한 정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인연으로 국민과 국가가 편안하고 지구촌 전체가 연꽃향기 가득한 평온하고 행복한 세상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경찰은 시민들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희망의 벗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웃이 여러분입니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뒤따르는 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가르침이기에, 여러분의 희생은 뜻깊은 보살행이자 선업의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든 일을 해결해주는 것 또한 부처님을 모시고 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로 고충이 많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바로 국민과 국가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동료들과 화합을 이루어 즐거운 근무 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큰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연등축제와 전국의 사찰에서 봉행하는 봉축법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여법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경찰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시민들에게 정신문화의 가치와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살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국가로 나아가는 확고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을 수호하는 금강신장과도 같은 여러분의 투철함이, 시민과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경찰 불자님과 가족 전체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여러분의 노고와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우리 사회에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5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